

Pascale Casanova,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

(Paris: Seuil, 1999), 492 p.

Debating World Literature, edited by Christopher Prendergast

(London: Verso, 2004), xiii + 353 p.

박성창 (국어국문학과)

1

민족문학 · 비교문학 · 세계문학, 이는 문학연구자라면 시도해볼 수 있는 연구의 여정 및 단계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러한 여정은 몇 가지 전제들을 수용했을 경우에만 진지하게 시도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나라 문학이든 얼핏 보면 고립된 개별문학의 축적인 것 같지만 실은 이질적이거나 아니면 문화적 공통분모를 지닌 다른 문화들과의 끊임없는 교섭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비교문학적인 관점의 문학연구가 강조되었고, 이는 개별 국가의 문학연구가 거둔 성과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주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틀을 보다 확장시켜 세계문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문학적 교섭과 수용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개별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문화적 파동(波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둘 또는 세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섭이 아니라 문명권과 문명권 사이의 접촉이나 또는 전지구적 문화의 흐름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가? 세계문학이라는 공간이 워낙 다양한 국가들의 문학을 포괄해야 하고 그 범위가 넓은 만큼 그러한 공간 자체의 설정이 선형적인 범주의 성격을 지닌다거나, 다양성을 훼손하는 단순한 도식의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비판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문학의 공간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프랑스의 이론가 파스칼 카자노바의 『세계문학공화국(*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프랜더개스트가 편집한 『세계문학을 토론하기(*Debating World Literature*)』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괴테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문학으로서 <세계문학 *Weltliteratur*>의 이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이념이 여전히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세계의 문학적 지형도를 살피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다. 괴테는 이른바 <국제적 대화>에 참여하는 개체들을 국민문학으로 간주하면서 세계문학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한다. 괴테가 <국민>이나 <민족>의 범주를 초월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상한 대화의 참여자는 국민문학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말하는 세계문학

에서는 유럽문학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괴테의 세계문학론에 깔려 있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접어두더라도 세계문학은 국민문학이라는 개별문학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세계문학은 지구상의 <모든> 문학들의 총합으로 기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문학의 여러 경향들에 아무리 민감한 학자라 하더라도 모든 문학들을 읽고 정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학론의 중요한 이론가인 프랑코 모레티가 지적하듯이 세계문학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문학에 접근하는 <범주들>을 바꾸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세계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델링은 이렇듯 경험적 데이터들의 총합적인 분석이 아니라 일종의 가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논리적 역설을 안고 있다. 또한 국민문학으로서 개별문학이 있고 이를 합치면 세계문학이 된다는 식의 관점은 글로벌리제이션, 즉 세계화로 명명되는 오늘날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세계문학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국가들 <간의>inter-national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글로벌>로 상징되는 국제적 힘들의 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의 국제화보다 훨씬 미묘한 문화의 국제화는 전통, 고유함, 향, 유희, 동화의 작용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부딪히는 갈등의 장으로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풍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 이론은 문학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나 합당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아르준 아파두라이의 *Modernity at large*¹⁾는 '초국가적 공공영역'의 형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주요 영화나 뉴스 방송, 혹은 텔레비전의 스펙터클한 장면들과 같은 시각적인 전자매체에 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대중매체에 의해 중개된 사건들과 이동 중인 청중들의 관계"를 세계화와 현대화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괴테의 <세계문학>이란 개념은 때로는 서로 겹쳐지기도 하는 두 가지 연구영역, 즉 비교문학과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앞서 말한 세계화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다. 프레데릭 제임슨이 말하는 <전지구적 문학global literature>이나 앞서 말한 모레티의 세계문학론,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레이 초우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세계문학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갈등의 장으로서 세계문학에 그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바로 윌러스타인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세계체제론이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프랑코 모레티는 윌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서 <하나이지만 불평등한>이란 공식을 가져와 세계문학의 틀을 재정립하는 토대로 삼는다. 즉 모레티는 <세계문학의 중심부와 주변부(또는 반(半) 주변부)가 하나의 관계로 묶여 있지만 양자의 관계에서는 불평등이 점증하고 있는 체제>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세계문학의 장을 <전세계에 걸친 상징적 헤게모니 확보 투쟁>으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모레티의 논의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세계문학론이 그 출발점으로 유럽 르네상스와 개별 국민문학의 발달을 삼는

1) Arjun Appadurai,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 of Minnesota Press, 1996. 최근에 이 책은 『고삐 풀린 현대성』(현실문화연구, 2004)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다면 그 귀결점으로는 20세기말, 혹은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형성된 세계문학 <시장 market>을 삼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세계>란 세계의 모든 문학들이라는 의미의 <전지구 적global>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가로질러 일어나는 <국제적인> 구조를 뜻한다.

2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갈등의 장으로서 세계문학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바로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파스칼 카자노바의 『세계문학공화국(*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이란 흥미로운 제목의 책²⁾이다. 카자노바는 월리스타인의 모델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하나지만 불평등한’이란 관념을 채택하고 있다. 카자노바가 월리스타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불평등한 구조들’이란 브로델의 관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계문학은 하나의 <체계>이지만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다양한 양상들을 노정하는 <불평등한 체계>라는 인식을 보다 정교화시킨 것이 바로 파스칼 카자노바의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카자노바는 무엇보다도 대항과 경쟁의 개념을 동원해 세계문학의 장을 설명하고 있다. 경쟁은 카자노바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서 문학적 장의 구축과 관련된 부르디외의 설명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카자노바가 말하는 국제적인 경쟁체제란 전세계적인 코스모폴리터니즘의 자유로운 표출의 결과가 아니라, 그녀가 <문학적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리듬과 산물을 통제하려는 국가들 사이의, 혹은 국민문학들 사이의 문화적 갈등과 경쟁을 의미한다. 그녀의 이러한 입장은 세계문학의 개념을 주창한 피테와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구분된다. 즉 피테는 국경을 가로질러 문학작품이 유통되고 교환되는 것을 경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반면 카자노바는 문학적인 <가치>가 비교적이고 경쟁적으로 산정되는 국제적인 시장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카자노바의 이론에서는 세계문학이 세계시장과 결합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경쟁관계에 기초한 국제적인 문학관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세계문학의 장은 이러한 대항과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데 승자가 이른바 <문학적 그리니치 시간대>를 구성함으로써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패자를 주변부로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부로 밀려난 또는 어쩔 수 없이 주변부로부터 출발하게 된 문학들은 중심부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이의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질적이면서도 성층화되어 있고 위계적인 세계문학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는 카자노바의 책의 구성처럼 전반적인 논지도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학적 세계>라는 제목의 1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1) 경쟁을 통한 세계문학의 공간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포준점, 일종의 문학적 표준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카자노바가 <문학적 그리니치 자오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2) 이 책의 1부 3장이 『세계의문학』(2001년 가을호)에 「세계문학의 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공간 속에 위치할 수 있는 지점인 동시에 (예를 들어 20세기 초 파리) 문학에 고유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 (문학적 모더니티)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문학의 공간에서 유통되는 보편성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반드시 서구문학의 미학적 기준으로 수렴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만들어지는 것, 또는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문학적 시간은 정치적인 시간과 연관되어 있기는 해도 그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2) 세계문학의 장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갈등의 장이다. 이는 문학적 자오선이 일종의 문학적 현재를 구성하며 문학적 중심으로부터의 미학적 거리가 시간적으로 측정될 수 있음에 따라 생긴 논리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계문학의 공간을 특징짓는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로 인해 이른바 <거대> 문학공간과 <소수> 문학공간은 서로 대립하며 후자에 속한 작가들을 비극적 상황에 몰아넣는다. 세계문학의 공간에서 주변부에 속한 작가들은 그들 자신의 주변부성에 사로잡혀 중심의 명증함 속에 위치한 작가들과는 달리 세계문학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시각만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3) 세계문학의 장을 이렇게 경쟁과 갈등의 모델로 사유하게 되면, 거대한 문학적 혁명들의 국제적인 유통을 더 이상 <영향>이나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기술할 수 없게 된다. 영향과 수용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일방통행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문학의 공간 내부에서의 힘과 불평등의 관계는 매순간 변화하며 변형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은 1930년대만 하더라도 전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주변부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30년 후에 이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장 인정받고 중심부에 통합된 문학공간이 되었다. 즉 문학적 자오선은 보편적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문학적 반항아들과 혁명가들>이라는 제목의 2부에서는 복합적이고 이질적이면서 위계적인 이러한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세 가지 관계가 유형별로 제시되어 있다 ; 동화, 반항, 혁명.

1) 동화의 패턴 : 이는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박탈된 지역에 속해 있는 작가가 스스로 활용할 문학적이고 국가적인 자원이 결핍되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길이다. 문학적 빈곤의 자각이 풍부한 유산을 지닌 다른 문화권으로의 편입을 낳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전통 문학을 거부하고 영구이라는 지배 문화의 흐름 속에 귀속되기를 자청했던 극작가 버나드 쇼의 경우나 자신의 모국어를 버리고 지배국가의 언어를 선택한 많은 식민국가 출신의 작가들(예를 들어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의 소설가 나이폴Naipaul)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 반항의 패턴 : 이는 동화의 패턴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문학적이고도 국가적인 차별화 또는 분리의 전략이다. 또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민족의 가장 특수한 곳, 이른바 지역적이고도 향토색 짙은 문화로 되돌아가려는 전략이다. 지배문화의 언어를 거부하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언어를 고집하는 아프리카 작가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혁명의 패턴 : 이는 문학적 자오선으로부터의 회피도 그를 행한 동화도 아닌 전복의 시도이다. 다시 말해서 문학적 그리니치 자오선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문학적 코드들을

전복시킴으로써 모더니티, 즉 세계문학의 실천을 바꾸는 데 기여한 시도를 뜻한다. 이러한 미학적 전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조이스와 베케트는 한편으로는 그 당시 형성되고 있던 민족주의 문학의 미학적 과제들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주류 문학이었던 영국문학의 규범들을 맹렬하게 거부함으로써 그 어떠한 귀속이나 동화의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³⁾.

3

크리스토퍼 프랜더개스트가 편집한 『세계문학을 토론하기(Debating World Literature)』는 카자노바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거나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15편의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몇몇 논문들은 이론적인 검토의 형식을 지니고 있고, 다른 논문들은 다양한 시공간에 집중된 사례연구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프랑코 모레티의 논문 「세계문학에 대한 단상」도 이 책에 수록된 중요한 논문들 가운데 하나이다. 서로 다른 필자들에게 의해 세계문학이나 비교문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수록 논문들은 세계문학론의 최근 모델들이 빠져들기 쉬운 단순하고 도식적인 틀에 맞서 복합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 책의 편집자이기도 한 프랜더개스트는 첫 번째 논문 「세계문학공화국(The World Republic of Letters)」에서 카자노바의 책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그 논의가 던져주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우선 카자노바의 이론이 <국민문학들 사이의 관계들의 본질과 의미>와 <문학사의 경쟁 모델의 지위>라는 두 가지 핵심적이면서 서로 연관된 양면적인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프랜더개스트는 세계문학의 장을 구성함에 있어 국가 이외의 다른 가변적 요소들도 존재하며, 경쟁 이외의 다른 관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국가 간의 경쟁이 반드시 문학발전의 중요한 요소도 아니며 <국가>라는 단일적인 이미지도 모든 분할과 구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적 상호관계가 아닌 협력적 상호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 <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몇 편의 논문들은 괴테의 <세계문학>으로부터 시작된 내적 움직임들을 추적하고 있다. 「변화하는 장들 : 괴테의 세계문학의 방향들(Changing Fields: The Directions of Goethe's *Weltliteratur*)」이란 논문은 이런 취지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글이며, 「전지구적 번역(Global *Translatio*)」과 「세계문학과 세계사유(World Literature and World Thoughts)은 비교문학의 창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어바흐와 레오 스피처의 저작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가, 인종, 제국 그리고 문학이라는 서로 연결된 주

3) 카자노바는 이 세 가지 패턴들이 모두 실현된 희귀한 문학 공간으로 아일랜드 문학을 들고 있는데, 주변부에 위치한 문학이 세계문학의 장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구사되었다는 점에서 이 모델을 <아일랜드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또한 카자노바는 2000년 9월 대산문화재단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아일랜드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아일랜드적 패러다임을 보다 깊이 연구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파스칼 카자노바, 「문학과 세계화의 길」, 『경계를 넘어 글쓰기』, 민음사, 2001)

제 속에서 소수/다수, 중심/주변과 같은 이항대립을 둘러싼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는 마지막 부분의 논의들이다. 카프카에 관한 스탠리 콘골드의 논문 「카프카와 소수문학의 언어 (kafka and the Dialect of Minor Literature)」는 카프카가 <작은small> 문학이라고 불렀던, 독일에서 프라하 유대인의 글쓰기가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카프카의 <작은 문학>을 <소수집단minority>의 문학으로 번역한 것이 부당한 논리적 비약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들뢰즈의 논의에 기대어 카프카의 문학을 주변부에 속한 소수집단의 문학이 중심을 향해 일으킨 문학적 혁명의 시도로 해석하는 카자노바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논문은 인도의 다양한 언어와 문학적 전통과 관련하여 최근의 세계문학론(특히 프랑코 모레티와 카자노바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프란체스카 올시니의 논문 「세계소설의 거울에 비친 인도(India in the Mirror of World Fiction)」이다. 그녀는 영어로 글을 쓰는 <다문화주의적> 작가(살만 루시디가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는 망명 작가라면 특히 더 어울리는데)를 제일 높게 평가하는 중심부의 미학적 기준으로 볼 때 인도 문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가려지게 됨을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다. 중심과 주변의 모델은 필연적으로 주변을 중심의 주위로 밀어내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문학적 사실들을 제대로 고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지역적인 것(local)/민족적인 것(national)/세계적인 것(global) 사이의 위계질서가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문화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학연구의 방향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예전에는 민족적인 것이 지역적인 것을 통합시키고 세계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추적 핵으로 기능했던 반면, 이제는 지역적인 것이 민족적인 것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계적인 것과 교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외국의 작가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시에 우리 작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만큼 세계는 하나의 동일한 공간 속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하나가 되어 버린 세계 속에서 문학의 교섭과 유통, 수용과 변용 등의 양상을 고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학연구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프랑코 모레티의 말처럼 <우리 주위의 문학은 이제 전지구적 체계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⁴⁾이다.

4) Franco Moretti,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Debating World Literature*, op. cit., 148 p.